조세희의『난장이가 쏘아올린 작은 공』에 나타난 소외양상 고찰

배경열*

〈차 례〉

1. 연구사 검토와 문제 제기
2. 인간소외에 대한 다양한 견해
3.『난장이가 쏘아올린 작은 공』에 나타난 소외양상
4.『난장이가 쏘아올린 작은 공』이 지닌 특징
5. 맺음말

【국문초록】

조세희는『난장이가 쏘아올린 작은 공』에서 많은 연구자들이 비판했던 것처럼 적극적이고 구체적인 대안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반복해서 다가오는 아픔 속에서 그는 현실의 방향을 잃어버리고 만다. 조세희 소설의 특징 중 하나인 이원론은 소외의식에 기반을 두는 2차원적인 세계이다. 이 세계는 의식과 사물, 세계와 인간, 안과 겉, 현실과 이상, 가진 자와 못 가진 자, 정상인과 비정상인이 존재하는 현실의 모습을 극단적으로 제시하기 위한 방법이다.

* 건국대학교 커뮤니케이션 문화학부

이러한 이원론적 대립이 더 심오한 방향으로 진전되지 못하고, 근로자의 체험이 결여되었다거나 노동자의 생생한 육성이 안 들린다든가, 과도한 추상화로 인해 작위적인 구성으로 문학적 감상주의를 낳을 수 있다는 비판을 받기도 하였다. 물론 이러한 비판에도 일리가 있지만 그보다 작가가 3차원의 현실세계에서 의도적으로 2차원적인 대립 구도를 통해서 난장이 · 꼽추 · 앉은뱅이 · 난장이 가족 등 사회 · 경제적인 여건 면에서 (-)징표를 가진 자들이 현실의 한 차원을 빼앗겨 버렸기에 단조롭고 평면적인 소외된 삶 속에서 존재할 수밖에 없는 처지를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점이 특이하다고 할 수 있다. 작가는 부조리한 현실을 '뫼비우스의 띠'로 보았고, 이를 입체화시킨 '클라인 씨의 병'을 제시하였다. 클라인 씨의 병에서처럼 '갇혔다는' 자체가 착각임에도 불구하고 '갇혀있다'고 느낀다면 현실의 의미는 자명해지는 것이다. 우리의 현실 또한 하나의 착각일 수도 있다는 것이다. '상상의 세계에서만 존재가능한 세계'가 실재하는 것처럼 현실은 비록 착각, 허상이지만 역시 존재하는 것이다. 바로 착각뿐인 이 현실에서 '살기가 너무 힘들다'고 느끼기에 '아름답고 순수한 세계'를 더욱 갈구하게 되는 것인데 상상 속에서 존재할 법한 기이한 현실이 엄연히 존재하는 한 난장이가 소망한 또 하나의 상상 속의 세상이 존재하지 말라는 법은 없다는 것이다. 즉, 뫼비우스의 띠나 클라인 씨의 병과 같은 착각인 듯한 현상이 실재하는 것처럼, 고통스러운 현실에 반하는 희망과 사랑이 넘치는 세상도 지금은 허상에 불과해 보이지만 언젠가는 그 모습을 드러낼 것이라는 작가의 논리가 반영되어 있는 것이다. 작가의 인식이 마냥 우화적이고 환상적이라고만 할 수 없는 이유가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구체적인 삶의 무게도 지니고 있음이 분명해졌기 때문이다.

사물을 옳게 이해할 줄 안다는 것은 보이는 것만 보지 말며, 보이지 않는 것도 존재하고 있다는 것, 그리고 어느 것도 홀로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의지하고 있는 것이며, 둘이 아니라 하나라는 점이다. 그러기에 시(是)와 비(非), 선과 악, 안과 밖을 구분하는 인간의 대립적 인식을 작가는 경계하고 있다. '난장이'와 '거인'은 서로를 통해서 존재를 확인할 수 있게 된다. 해가 있으므로 밤이 아니고, 달이 있으므로 낮이 아닌 것처럼. 조세희는 이를 아예 붕괴하고 싶었던 것이다. 대립된 세계가 아닌 사랑이라는 이름의 희망을 함께 공유할 수 있는 세계를 조세희는 간절히 꿈꾸었던 것이다.

요컨대 조세희는 가진 자와 못 가진 자가 공간의 안과 밖처럼 분리되어 그 사이에 아무런 소통도 이루어지지 않는 현실을 일순간에 초극하고 싶었기에, 비현실적으로 보이지만 실재하는 개념인 안과 밖의 구분 없음을 '뫼비우스의 띠'와 '클라인 씨의 병'을 보여줌으로써 계층 간의 진정한 화해를 바라고 있음을 보여준다. 진정한 화해를 위한 방법으로 조세희가 제시한 것이 바로 '사랑'이다.

주제어: 조세희,『난장이가 쏘아올린 작은 공』,70년대. 부조리, 소외

1. 연구사 검토와 문제 제기

기존에 있어왔던 조세희 관련 연구는『난장이가 쏘아올린 작은 공』(이하『난쏘공』)에 대한 연구가 주를 이룬다고 할 수 있겠다. 조세희의 다른 작품들마저『난쏘공』과 깊은 관련을 맺고 있으며, 이 작품을 떠나서는 조세희의 생각들마저 언급할 수 없게 된다. 따라서『난쏘공』에 대한 기존연구의 검토 또한 약간의 차이를 두어서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이 작품에 대한 논의는 크게 세 방향으로 진행되어 왔다.

첫 번째 논의는『난쏘공』에 대한 작품의 형식이나 기법 면에 관한 논의는 김병익, 염무웅, 권영민, 이경호, 황순재, 신명직 등에 의해 진행되었다. 김병익[1]은 이 소설들이 각각 독립적인 단편인 동시에 전체적으로 장편 소설의 구조를 지니고 있다는 점과 사실주의적 소재를 반 사실주의적 수법으로 형상화하고 있다는 사실, 그 인물과 사건들은 극히 단순하고 명백함에도 그 저변에는 복잡하고 순환적인 세계의식이 깔려 있다는 사실, 짧고 명료한 객관적인 문체에도 불구하고 심리변동의 묘사에 거의 시적인 기미를 보이고 있다는 사실 등을 지적하였다. 이와 달리 염무웅[2]은 그러한 형식과 기법의 복잡한 테크닉이 표현의 대상과 주체가 체험적 동질성을 확보하지 못한데서 오는 하나의 필연적 현상이라는 견해를 보이기도 한다. 하지만 이 부분의 연구는 이동하가 "조세희를 논하는 사람들은 거의 예외 없이 그의 소설이 지닌 기법적 특징의 이해가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으나 정작 그 기법상의 특성을 상세하게 구명한 작업은 거의 발견되지 않는다[3]"고 지적할 정도로 무척 미흡한 것이 사실이다. 이는 난장이가에 나타나고 있는 특이한 창작 방법상의 특성이 한국 문학 전통에 익숙한 평자, 독자들에게 낯설게 느껴져서 특이한 문체에는 관심을 두면서도 그 부분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가 미흡한 것에 그 이유가 있다고 생각한다. 난장이가 작품의 내용적 측면과 현실적 측면이 잘 조화되어 문학적 성과를 획득했다는 평가를 할 수 있으려면 이 부분에 대한 연구가 꼭 필요하다고 여겨진다. 권영민[4]은 기법적

---

1) 김병익,「난장이, 혹은 소외집단의 언어」,『문학과 지성』, 1997, 봄, pp. 183-184.

2) 염무웅,「도시·산업화 시대의 문학」,『민중시대의 문학』, 창작과 비평사, 1979, p. 345.

3) 이동하,「조세희 연구의 성과와 앞으로의 과제」,『작가세계』7, 겨울, 세계사, 1990, p. 106.

4) 권영민,「연작의 기법과 연작소설의 장르적 가능성」,『소설과 운명의 언어』,

인 면 중에서도 조세희의 소설에서 빠질 수 없는 중요한 기법 중 하나인 '연작'의 방법에 주목하고 있다. 계기적인 결합의 원칙에 따른 연작에 의한 주인공의 순환, 주제의 심화, 상황의 확대 등을 바탕으로 물질적 풍요를 누리는 자본계층과 비참한 삶을 살아가는 난장이 일가에 대한 '대조의 효과'가 극대화되어 소설적 성과를 얻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논의들이 '단편소설이면서 장편소설이다.'라는 사실만 언급하고 있고, 이러한 기법에 의한 효과는 거의 논의가 되지 않고 있다. 이는 작가의 개성이 가장 잘 드러나는 작품의 형식적 측면의 문체이고, 조세희의 독특한 문체가 이전의 우리 문학에서는 보기 드문, 과감한 생략을 한 문체이기에 평자의 관심이 문체에만 집중되어 논의된 결과라 여겨진다. 따라서 작품이 발표순으로 엮어진 것이 아니고,「칼날」의 발표 이후 연작 소설집으로 발간되었을 때,「칼날」의 신애의 남편 '지섭'을 '현우'로「우주여행」의 '신애'를 '은희'로 고쳐 연작의 성격을 갖추고 있고 연작에 의해 난장이와 그의 아들이 주인공으로 부각된 한편의 장편소설로 읽히기 때문에 '연작의 방법'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가 있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경호는『난쏘공』의 "서정적인 문체와 환상적이고 동화적인 분위기는 대립의 객관적인 면모와 진행과정을 희석시키는 역기능을 초래한다"[5]고 보고, 서술구조나 인물묘사에서 역시 작가의 주관화 의욕이 두드러진 나머지 부작용을 초래했다고 비판한다. 연작소설에서 다양한 시점의 이동을 취하고 있지만, 일관된 문체의 분위기와 대립적인 구조를 부각시키려는 작가의 의도로 인물들이 내적 자율성을 부여받지 못했고 선과 악의 지나친 이분법적인 인물묘사로 개연성을 역시 획득에 실패했다는 지적이 그것이다. 황순재는 "조세희의 소설적

현대소설사, 1992, pp. 310-312.

5) 이경호,「서정의 공간과 다성의 공간」,『작가세계』7, 겨울, 1990, 세계사, p. 96.

방법론은 지배적이고 공식적인 재현방식이 갖는 합법성에 대한 저항이라는 의미를 가질 수밖에 없다"[6]고 보고, 이런 능동적 저항이 『난쏘공』에서 연작소설 형태를 통한 텍스트의 중층적 구성을 의도하게 된다고 했다. 이로써 작품은 자연스럽게 다성적인 형식을 취하게 되고, 분할된 관념이 상호교섭을 이루는 중층적인 구조를 형성하고 있다. 그러나 폭압적이고 위악적인 사회현실 때문에 다양한 인식에까지는 도달하지 못했다고 보았다. 신명직은 『난쏘공』 연작이 발표되던 1970년대 중반에는 세계에 맞서 대응할 주체가 제대로 형성되지 못했다고 파악하고, "이러한 시대현실의 극복을 위해 『난쏘공』이 의존하고 있는 것은 결국 '환상'이다."[7] 라고 보았다. 그는 환상성이 지닌 현실 전복적인 성격으로 리얼리티를 보완할 수 있다고 보고, 『난쏘공』이 지닌 1970년대적 리얼리티와 그 극복방법으로서의 환상성에 초점을 맞추고 논의를 진행해 나간다. 더불어 알레고리와 상징, 낯선 양식의 병치, 장면·목소리의 오버랩, 다성성 등 미적 장치로서의 환상성의 역할에 대해서도 언급하고 있다.

두 번째 논의는 『난쏘공』이 내용으로 하고 있는 70년대 노동현장이 어떠한 관점에서 제기되고 있는가 하는 것의 논의이다. 이는 70년대의 근대화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대두된 도시 빈민과 공장 노동자들과 같은 소외계층의 삶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으며 또한 그들과 억압적 구조와의 대립, 단절의 관계는 작품을 통해 어떻게 반영되고 있는가 하는 것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꽤 많은 논의가 이루어져왔다고 할 수 있는데, 오생근, 이동렬, 김종철, 염무웅, 정과리, 김우창, 김치수, 성민엽, 오세영, 이동하. 장경렬 등이 이러한 논의를 펴고 있다. 오생근은 "조세희의 『난쏘공』은 70년대 한

6) 황순재, 「조세희 소설 연구(Ⅰ)」, 『한국문학논총』 18, 1996, p. 154.
7) 신명직, 『불가능한 전복에의 꿈』, 시인사, 2002, p. 11.

국사회가 부딪치고 있는 근대화에 따른 제반 문제를 선명하게 보여주는 것으로 작가는 그가 주장하고 싶은 말을 직설적으로 노출하지 않고 다만 독자들의 올바른 판단을 내리게 유도하고 있다."[8] 고 평가한다. 이동렬은 "불구의 가장 난장이와 공장 근로자들인 그의 자녀들의 삶과 꿈의 얘기를 통해 작가는 급격한 산업화의 과정에 있는 오늘의 우리 사회에서 가장 정열적인 논쟁의 중심에 있는 노동문제를 정면으로 부각시킨다."고 하면서 "달콤한 허위의 우화가 감싸고 있는 시대를 거침없이 암울한 시대로 조명하는 명석한 작가정신"[9]을 지적한다. 김종철은 이 소설이 "70년대의 사회변혁에 연관하여 낮은 계층의 사람들이 직면하였던 생존의 전형적인 상황을 끈덕지게 추적함으로서 이러한 상황이 내포하는 인간적, 사회적 의미를 질서 정연한 논리적인 구조 속에 파악하게 해준다."고 하면서, "조세희의 소설은 70년대 벽두에『객지』가 보여준 문학적 성과를 포괄하면서 적어도 70년대 후반까지 우리의 노동현실이 겪어 온 경험에 대한 총체적인 인식의 하나를 보여주는 것이다.[10]"고 평가한다.

세 번째 논의는「뫼비우스의 띠」와「클라인 씨의 병」에 나타난 세계관에 대한 것이다. 장경렬은 일정한 한도와 경계를 갖는 뫼비우스의 띠는 2차원의 세계이고, 열린 공간을 가진 '클라인 씨의 병'은 3차원의 세계로 인식하여 물질적인 측면에서 난장이는 2차원이 세계에, 그와 대립하고 있는 경영주는 3차원의 세계 살고 있지만 정신적인 측면에서는 난장이는 3차원의 세계에, 경영주는 2차원의 세계에 존재하고 있는 역동적인 세계를 보여주고 있다[11]고

---

8) 오생근,「진실한 절망의 힘」,『창작과 비평』가을, 창비, 1978, pp. 358-362.
9) 이동렬,「암울한 시대의 밝은 조명」,『문학과 지성』, 문학과 지성, 1978, pp. 291-297.
10) 김종철,「산업화와 문학」,『창작과 비평』봄, 창비, 1980, pp. 86-92.
11) 장경렬,「뫼비우스의 띠와 클라인 씨의 병」,『작가세계』7, 겨울, 1990.

이야기한다. 그러나 김윤식은 '클라인 씨의 병'은 자본제 사회를 이해하기 위한 논리인데, 이를 윤리화시켜 논리를 전략, 전술화한 것을 비판하고 있다. 단순한 현실 인식과 강렬한 윤리관을 정당화하는 방식으로 '클라인 씨의 병'에 대해 말하였다는 것이다.[12] 이와 같이 난장이는 여러 평론가들에 의해 작품의 형식이나 기법 면에서 긍정적 평가와 비판적 평가를 같이 받았고, 작품의 내용면에서 70년대의 노동현장을 논리적인 구조 속에 파악하게 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그의 작품이 그리 많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조세희'라는 작가에 대한, 또 그의 소설에 대한 연구가 다방면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것은 조세희가 우리 문학에서 차지하는 위치를 단적으로 나타내고 있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다. 그가 소설을 쓴 시기, 소설 속의 시기와 그의 소설이 나타내고자 하는 작가의 의도가 내용과 적당히 어우러지면서 조세희의 위치를 다지게 되지 않았나 싶다. 다만 아쉬운 것은 그의 소설이 연작으로 이루어진 것들이기 때문에 '다방면'의 연구가 어느 선에 한정되어 있었다는 점이다.

논자는 '소외'라는 관점에서 『난쏘공』을 연구하고자 한다. 조세희 소설의 특징 중 하나인 이원론은 소외의식에 기반을 두는 2차원적인 세계이다. 의식과 사물, 세계와 인간, 안과 겉, 현실과 이상, 가진 자와 못 가진 자, 정상인과 비정상인이 존재하는 현실의 모습을 극단적으로 제시하기 위한 방법이다. 이러한 이원론적 대립이 더 심오한 방향으로 진전되지 못하고, 근로자의 체험이 결여됐다거나 노동자의 생생한 육성이 안 들린다든가, 과도한 추상화로 인해 작위적인 구성으로 문학적 감상주의를 낳을 수 있다는

12) 김윤식, 「문학사적 개입과 논리적 개입」, 『문학과 사회』 겨울, 문학과지성사, 1991.

비판을 받고 있기도 한다. 물론 이러한 비판에도 일리가 있지만 그보다 작가가 3차원의 현실세계에서 의도적으로 2차원적인 대립구도를 통해서 난장이 · 꼽추 · 앉은뱅이 · 난장이 가족 등 사회 · 경제적인 여건 면에서 (-)징표를 가진 자들이 현실의 한 차원을 빼앗겨 버렸기에 단조롭고 평면적인 소외된 삶 속에서 존재 할 수밖에 없는 처지를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 여겨지기 때문이다.

2. 인간소외에 대한 다양한 견해

'소외'라는 개념은 근대사회에 들어서면서 일부 철학자, 사상가들의 주요한 학문적 관심사로 부각되었다. 이들은 18세기 유럽사상에 결정적 영향을 미친 루소(J.Rousseau)와 사회계약론자들 그리고 독일의 관념학자들 중 피히테(J.G.Fichte) · 실러(F.Schiller) 및 이의 완성자인 헤겔(G.W.F.Hegel) 그리고 청년 헤겔파의 포이엘바하(L.A.Feuerbach)와 맑스(Karl Heinrich Marx) 등이 그 대표적 인물이라 하겠다.[13]

헤겔에 의하면, 소외개념은 근대사회의 법적 공동체에 의한 폴리스적 공동체를 지배하는 정신의 상실을 뜻하면 그 극복이 '절대화'의 상태에 들어가는 것이므로 추상적이고 관념적이다.[14] 관념적인 헤겔에 반하여 포이엘바하의 소외개념은 인간적 실재로서의 감성에 중요성을 둔 것으로써 신이 인간의 자기소외의 산물임을 주장하고 인간은 유(類)와 개(個)의 분열에 의해서 인간과 그 자신의 본질과의 대립이라는 자기소외상태에 직면하게 된다고 하였다.[15]

---

13) 정문길,『소외론 연구』, 문학과 지성사, 1978, p. 24.

14) Hegel, *phanomenologie des Geistes, Hamhung,* J. Hoffmeister, 1952, p. 350.

15) Ibid., p. 352.

맑스가 사용한 '소외'는 소외되지 않는 상태보다 못하거나 또는 소외된 상태에 있는 인간존재의 상태에 대해 언급한 것이며,[16] 이는 비인간적 권력에 의해 인간이 지배되는 것이라고 했다. 즉 자신의 행동이 자신에 의해서 지배되지 않는 상태를 말하며 이런 의미와 범위 내에서 맑스는 소외를 삶의 부정적인 개념으로 보았다. 그는 개인과 그 개인의 삶의 방식이 다 소외된 것으로 말하고 있다.[17] 즉 인간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결정하는데 있어서 어떤 역할도 못하므로, 개인과 그의 삶의 활동 사이의 단절인 노동으로부터 소외되고, 그가 만드는 것 또는 나중에 되는 것에 대해 어떤 통제도 할 수 없으므로 개인과 물질세계 사이의 단절인 자신의 생산물로부터 소외되며, 경쟁과 계급 적대감이 협동을 불가능하게 하므로 인간과 인간 사이의 단절로 동료로부터 소외된다고 하였다.[18] 이러한 맑스의 소외개념은 1950년대에 유행한 실존주의 철학과 함께 현대의 인간적 상황을 설명해 주는 중요한 개념이 되었다.

실존주의 철학도 인간을 이방인으로 파악함으로써 소외현상을 부각시켰다. 이간은 그 실존이 본질에 선행하는 존재이며, 자신의 미래를 만들어 나가야 하는 부단한 선택과 책임을 선고받은 존재이다.[19] 따라서 인간은 자신이 당면한 결단의 상태에서 피하려고 할 때 이미 그것은 곧 자기 자신으로부터 도망치려고 노력하는 존재인 것이다.[20] 이러한 주관과 객관과의 분열에 대한 가치중립적인 인식은 문제들을 치료하기보다는 오히려 그것 때문

16) Bertell Ollman, *Alienation : Marx's Conception of Man in Capitalist Society*, New York : Cambridge Univ. Press, 1971, p. 132.

17) Ibid., p. 132.

18) Ibid., pp. 133-134.

19) Jean Paul Sartre, 방곤 역, 『실존주의는 휴머니즘이다』, 문예출판사, 1951, p. 180.

20) Fritz Pappenheim, 진덕규 역, 『현대인과 소외』, 문학과 사상사, 1969, p. 39.

에 문제를 더 한층 심각한 것으로 만들게 됨으로써 마침내 인간은 현실로부터 소외되고 만다. 즉 인간은 자기가 신으로부터 도망쳐서 자기의 실존을 군중이라는 익명의 올바르지 못한 상태 속으로 빠지게 함으로 결국 자기 자신으로부터도 소외되고 만다는 것이다.[21]

베버(M,Weber), 만하임(K.Mannheim) 등 많은 사회학자들은 관료제화에 의한 소외에 관해 이론을 전개하였다. 기계화되고 자동화되는 생산 과정이 가능하게 됨으로써 현대의 조직은 합리성을 원리로 하는 거대한 기구로서 관료제화되고 있다. 이와 같은 관료조직 속의 인간은 거대한 조직의 한 부분으로서 비개성화하고 무력화해지며, 조직이 요구하는 기대에 맞추어 자동 인형화하는 현상을 빚고 있다는 것이다.

프로이드(Sigmund Freud)와 프로이드의 정신분석학 사상을 받아들인 프롬(E.Fromm)은 인간을 바라보는 심리학적 관점이 비슷하다. 하지만 프로이드가 본능적인 삶을 인간다움의 충실한 삶으로 보는데 반해, 프롬은 사회적 요소를 도입해 인본주의적 공산사회일 때 비로소 인간이 인간다울 수 있다고 주장하는 점이 큰 차이이다. 프롬은 20세기의 사상가들 중에서 현대 철학의 중심 조류였던 정신분석학과 마르크스주의 그리고 실존철학을 종합하려고 시도한 유일한 사상가다. 그는 기본적으로 마르크스에게 무한한 애착을 가지고 있는 인본주의적 사회주의자이면서도 루카치와 같은 마르크스주의자들이 반동 사상가들로 배척한 프로이드나 니체, 하이데거와 같은 사람들의 통찰을 받아들이는 데도 주저가 없었다. 프롬은 소외의 개념을 현대사회에 보편화, 대중화 시키는데 결정적인 공헌을 했을 뿐만 아니라, 소외개념을 통한 맑스와 헤겔 사상의 새로운 조명을 가능하게 했다는 점에서 커다란 의미를 갖는

21) Jean Paul Sartre, 방곤 역, 앞의 책, pp. 13-22.

다고 하겠다.[22] 그는 맑스의 소외개념에 심리적인 깊이를 더하는 한편 그것이 가지고 있는 계급사회적 속성을 불식시킴으로써 이를 현대의 대중사회에 적용할 수 있는 하나의 계기를 마련했던 것이다.[23] 프롬에 있어서 소외란 인간이 그 자신을 이질적인 존재로서 경험하는 경험의 한 유형을 의미한다.[24] 즉 인간이 자기 자신을 세계의 중심으로서, 자신의 행위의 창조자로서 경험하지 못하고 자기행동과 그 행동의 결과가 그를 지배하는 주인이 되어 그는 그것에 복종하고 숭배까지 하며, 소외된 인간은 타인과 떨어져 있듯이 그 자신으로 부터도 떨어져 있다. 자신이 지각과 상식을 가지고는 있으나 그것을 자신이나 외부세계에 대해서 생산적으로 관련시키지 못하는 것이다.[25] 이와 같이, 인간의 활동이나 그 결과가 인간으로부터 분리, 자립적인 것이 되어 인간을 지배하는 상황으로 변하는 맑스의 소외이론에 비해, 프롬의 소외이론은 의식의 내부에서 일어나는 자기소외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리고 프롬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소외구조로서 이는 현재의 소외된 상태를 인간이 그들의 행위나 그 결과에 복종하고 그것을 숭배하여 다른 사람이나 그 스스로부터 떨어져 있는 것을 중심으로 하여 그 이전의 소외되지 않는 상태, 즉 인간 스스로가 세계의 중심이 되어 행위의 창조자로 활동하던 때와 인간이 그 자신과 외부세계에 대해 생산적으로 관련되어 얽매인 소외상태를 명확히 인식하여 구분하고 있다.[26] 프롬을 비롯하여 대중을 연구한 사회주의학자들은 주로 공동체의 상실과 사회적 연대감의 상실, 그리고

---

22) E.Fromm, *The Escape from freedom*, New-York: Rinehart & Winston, 1941, p. 207.
23) Ibid., p. 210.
24) Ibid., p. 213.
25) 정문길, 앞의 책, p. 181.
26) 정문길, 앞의 책, p. 182.

고독하게 원자화된 개인들이 경험하는 대중사회 속의 소외를 강조하였다. 대중 사회의 소외된 인간들은 여러 가지 도피의 메커니즘을 통해 적응하려고 한다고 그는 주장하였다. 프롬이 말하는 도피의 메커니즘은 세 가지로 요약될 수 있다. 첫째, 권위주의에의 도피이다. 소외된 개인은 강력한 권위의 소유자에게 자기 자신을 예속시킴으로써 자유의 부담으로부터 도피한다는 것이다. 둘째, 파괴주의에로의 도피인데, 이것은 개인을 제압하는 모든 외부의 힘을 증오하는 것이다. 셋째, 다수의 기대에 자기 자신을 동조시킴으로써 스스로를 자동인형화 하는 방법이다.[27] 이것은 리이즈먼(Riesman)이 말한 타자지향형 인간(他者志向型 人間, other-directed type)과 유사한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3.『난장이가 쏘아올린 작은 공』에 나타난 소외양상

조세희의『난쏘공』은 모두 열두 편의 단편소설들이 결합되어 있다. 이 작품의 전체적인 이야기는 지난 십여 년에 걸쳐 우리가 경험해온 급격한 산업화의 소용돌이와 그 충격으로 파생된 여러 가지 사회의 구조적 모순과 부조리 가운데서, 산업노동 현실에 직면한 낮은 계층의 사람들의 생활조건이 어떠한가를 예리하게 보여주고 있다. 70년대의 사회변화에 따라 난장이 일가를 중심으로 낮은 계층의 공장노동자들이 체험하고 있는 삶의 전형적인 상황을 분석하면서, 이러한 상황이 내포한 인간적·사회적인 의미를 깊이 통찰하고 있다. 이 작가는 현실을 경제적 계층 간의 필연적인 갈등으로 보고, 비극을 사회적 착취, 말하자면 사회 특권 계층의 착취와 동일시하고 있다.

---

27) E.Fromm, op. cit., p. 209.

자본주의의 성장과 더불어 나타나는 산업화, 도시화, 유동계층의 형성이 전반적으로 사회구조의 변동을 가져오면서 계층 간의 갈등과 소외현상을 뒤따르게 하는 것은 산업화 이후 서구사회에만 적용되는 현상은 아니다. 이와 같은 상황은 하나의 피할 수 없는 과정으로 우리 역사 자체의 총체적 순간이며, 이 충격적인 상황을 조세희는 하나의 전형적인 순간으로 인식하고 있다. 따라서 작가는 난장이의 아이들이 일하는 '은강 그룹'이라는 재벌 기업에 속한 몇몇 공장에서 공장노동자들이 어떠한 고난을 받고 있으며, 온갖 악조건 속에서 노동자로서의 의식이 어떻게 성장해가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데 있어서 객관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다. 소설『난쏘공』에서 중시되고 있는 대립과 갈등, 화해와 사랑, 빼앗는 자와 빼앗기는 자의 거리, 의지와 좌절, 어둠과 빛, 가진 자와 가지지 못한 자의 관계 등은 모두 작품구조의 특성과도 직결되어 있다는 점에서 연작성의 의미가 주목을 요하게 한다. 이러한 연작성의 방법은 이 작품이 거두어들이고 있는 소설적 성과와 직결된다. 그것은 우선 '대조의 효과'라는 말로 규정할 수 있는 기법의 성공을 뜻한다.[28]

『난쏘공』의 작가는 플롯의 이중구성을 통해 경험의 '이중의식'을 보여주고 있다. 그 하나가 사회 특권층인 가진 자에 의하여 학대받는 힘없는 노동자들의 고통이라면, 다른 하나는 그것과 대조적으로 사랑으로 충만되어 있으리라 믿고 있는, 황금색의 별세계인 달나라에 대한 동경이다. 현실에서 실현될 수 없기에 이러한 세계에 대한 동경은 주인공들의 절대적 가치가 되고 있다. 소설의 근본적인 구조는 '문제적인 주인공'이 절대적인 가치가 발견될 수 없는 현실에서 절대적인 가치를 찾다 패배하는 세계라는 루카치의 이론과 같이 조세희의 주인공들은 그 동경을 꿈으로만 간직한 채

28) 권영민,『현대문학사 2』, 민음사, 2012, p. 327.

현실의 원리에서 패배하는 인간들이다. 이중플롯을 통해 이 작가가 제시해주고 있는 이중의식은 작가로서 그의 윤리가 어떤 것인가를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난쏘공』의 전체 이야기 가운데에서 그 중간 부분은 난장이 일가의 몰락을 중심으로 꾸며지고 있으며, 그 뒤에 이어지는 이야기에서 물질적 풍요를 누리고 살아가는 자본가 계층의 삶이 대조적으로 연결된다. 어두운 그늘이 있는 만큼 더욱 밝은 부분이 있기 마련이라는 판단이 분열되어 있는 두 세계의 모습에서, 우리는 주인공의 상태, 주제의 심화, 상황의 확대 등을 선명하게 엿볼 수가 있다.[29]

조세희 문학의 면모를 살펴보고자 할 경우에는 무엇보다도 먼저 언급해야 할 것은, 이 땅을 지배하고 있는 자본가들의 사악함에 대한 작가의 준열한 고발이다. 조세희는 우리 사회의 곳곳에서 부와 권력을 장악한 소수의 집단이 사람들을 무자비하게 짓밟고 있는 것을 보고, 이 세계를 '죽은 땅'으로 규정한다. 그러면서 그는 이 저주받은 땅을 다음과 같이 묵시론적 언어로 탄식한다.

> 지상에서는, 시간을 터무니없이 낭비하고, 약속과 맹세는 깨어지고, 기도는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눈물도 보람이 없이 흘려야 하고, 마음은 억눌리고 희망은 이루어지지 않는다.[30]

조세희는 이 저주받은 땅의 악마적인 경제논리에 의해 핍박받는 대표적인 존재를 도시빈민과 노동자로 파악하며, 그들이 겪어야 하는 고통스러운 삶의 실체를 집요하게 추적한다.[31]

조세희의 '난장이'는 소설 속에 등장하는 특정인물의 이름이라

---

29) 같은 책, p. 328.

30) 조세희,『난장이가 쏘아올린 작은 공』, 생각과 힘, 2012, p. 67. 이하 작품 인용은 페이지 수만 기록함.

31) 이동하,「어두운 시대의 꿈」,『작가세계』겨울, 세계사, 1990, pp. 41-42.

는 수준을 넘어서서 1970년대 급격하게 자리 잡은 산업사회, '힘' 제일주의 풍조의 그늘에서 삶의 뿌리를 내리기 위해 몸부림치고 있는 바로 그런 왜소하고 초라한 존재들을 상징적으로 형상화하는 능력까지 보여주고 있다. 1970년대 소설의 주인공 가운데서 아마도 '난장이'만큼 뿌리 뽑힌 자의 인물을 적실하게 드러내주고 있는 것은 없다. 70년대 두드러진 경제성장과 산업화에 따른 우리 사회의 문제점은 한두 가지가 아니었다. 각종 공장이 세워지고 고속도로가 뚫리며 아파트 건물이 숲을 이루고, 다른 한편으로 한국 전래의 미풍양속이 사라지고 산업화의 특징인 서구화 현상이 두드러지게 드러났다. 대체로 의식주를 위한 생활수준이 향상되자 일상적인 삶을 즐기는 레저붐이 일고 적지 않게 유흥적인 퇴폐산업도 고개를 들기 시작했다. 시내 도처의 고급음식점과 유흥가의 수박시설 및 자가용족을 위시한 주말 콘도미니엄 따위가 구체적인 본보기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렇게 고도성장으로 인해 사회발전의 그늘에 가리거나 놀려 지내는 수많은 근로계층과 농민 및 서민대중의 소외현상과 위화감 또는 심각한 문제로 대두하였다. 말하자면 사회발전에 힘써 일해 온 사람들이 가난하게 살며 고생하고 일부 계층은 별다른 노력 없이 여유를 누려 불균형된 부의 분배 현상이 드러난 것이다. 우리는 이런 문제를 당시의 문제작으로 널리 읽혀 화제를 모은 『난장이가 쏘아올린 작은 공』에서 살펴볼 수 있다. 『난쏘공』은 신체적 결함을 지녔으나 그런대로 착하고 열심히 노력하는 난장이 가족을 통해서 70년대 당시의 사회실상을 여실하게 보여주고 있다. 다섯 식구를 거느린(김불이)는 지금까지 채권매매, 칼 갈기, 고층건물 유리 닦기, 펌프설치, 수도 고치기 등으로 일해 왔지만 가난을 면치 못했다. 그래서 서울 변두리인 낙원구 행복동에서 판잣집 같은 임시건물에 기거하고 있는 것이다. 그나마 고생에 찌든 가장이 돈벌이를 못하게 되자 아내는 인쇄소 제

본공장에 나가 접지일을 하고 장남인 윤호는 인쇄소 조역으로 들어가 공목, 약물, 정판을 맡았고 차남인 영호는 한 공장에서 인쇄일을 했으나 두 아들이 회사 측에 처우개선을 요구하려다가 함께 밀려난 터라 실직상태에서 생계가 어려운 처지이다. 거기다가 설상가상으로 구청으로부터 그곳의 재개발을 위한 철거 계고장을 받자 암담한 상황에 봉착하게 된다. 철거민한테 주는 아파트 입주권을 받았지만 58만원인 분양아파트나 30만원이 드는 임대아파트에도 들어갈 처지가 못 되어 입주권을 팔게 된다. 시에서 주는 이주 보조금보다 2만원 더 많은 17만원을 받았다는 명희네보다는 8만원을 올려 받고 승용차를 타고 온 거간꾼에게 넘긴 것이다. 그리하여 아파트는 결국 철거민들의 공간이 아니라 가진 자들의 공간이 되고 만다. 가진 자들이 투기한 그 아파트는 그 자체로서 그들에게 아무런 사용가치가 없고 교환가치만 가지고 있기 때문에 투기의 대상이 된다. 그들은 살기 위해서 아파트를 구입하는 것이 아니라 돈을 벌기 위해서 아파트를 구입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철거민들이 빼앗긴 대가가 그 본래의 가치의 지배를 받는 것이 아니라 비본질적인 가치의 지배를 받게 된다. 이와 같이 그들의 사회는 철저하게 돈의 교환성이 지배하는 사회이다. 따라서 존재로서의 인간이 부정되고 도구로서의 인간(Zuhandensein)만이 존중되는 사회이다.

> 나는 은강에서의 생존비를 생각했다. 생활비가 아니라 살아남기 위한 생존비였다. 우리 삼남매는 죽어라 공장일을 했다. 우리는 우리의 생산 공헌도에 못 미치는 돈을 받았다. 네 명의 가족을 둔 그해 도시 근로자의 최저 이른 생계비는 팔만삼천사백팔십 원이었다. 어머니가 확인한 삼남매의 수입 총액은 팔만 이백 삼십 일 원이었다. 그러나 보험료·국민저축·상조회비·노동조합비·후생비·식비 등을 제하고 어머니 손에 들어온 돈은 육만이천삼백오십일 원밖에 안 되었다. 이 돈을 벌어오기 위해 우리는 죽어라 일했고 어머니는 늘 불안해했다. (p. 210.)

아무 것도 가지고 있지 못한 노동자 계급의 대표적인 난장이 가족의 현실이 잘 드러나 있는 지문이다. 이 같은 소외계층의 주변부로의 밀려남, 비참한 생활상과 반대로 맞서 있는 자본가의 화려하고 타락한 생활상이 이분법적 대립구조 사이에 '신애'같은 인물을 통해 일촉즉발(一觸卽發)의 순간을 예견하게 하는데 이것은 언제 터질지 모르는 서민들의 각박한 삶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사람들은 자기가 어느 세계에, 어느 편에 소속되어 있는지를 뚜렷이 의식하고 있다. 이것이 조세희가 파악한 70년대 한국 산업사회의 모습이다. 그렇지만 조세희 주인공들은 자기가 그 상황 속에서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어는 방향으로 탈출구를 찾아가야 할지에 대해서까지 뚜렷한 답을 알고 있는 것은 아니다. 노동자와 자본가의 이분법적 대립구조는 70년대 한국사회를 착취와 피착취라는 단순한 이분법으로 설명하고 있는데, 이러한 현실인식을 바탕으로 신조차도 예외 없이 죄인이라는 강렬한 윤리관을 드러내고 있다.

산업화의 초기단계는 인간 이성에 대한 믿음을 기초로 하여, 그러한 이성적 인간을 주체이자 중심에 놓고 그 객체로서의 자연을 과학적으로 가공하여 재구성함으로써 사건이 진행된다. 이러한 주체로서의 인간이성은 처음에는 인간에게 물질적 풍요를 안겨주면서 은혜로움을 보여주지만, 점차 산업화가 진행됨에 따라 이성은 타락하여 인간조차 자신의 지배수단으로 이용하는 도구적 이성으로 전락하게 된다. 그 결과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것은 사회의 중심부에 자리 잡게 되고, 비이성적이고 비합리적인 것은 주변부로 전락하여 중심부에 의해 이용당하게 되는 이분법적 체계를 구축한다.[32] 조세희의 『난쏘공』은 이런 대립구조를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으며 그것을 해체하려는 모습까지 보여주고 있다.

---

32) 김병익, 앞의 논문, p. 208.

입주권을 사간 승용차 근처에 있다가 사나이를 따라가서 남몰래 행방불명된 딸을 찾지 못해 식구들은 모두 걱정에 휩싸이게 된다. 열일곱 살이지만 잘 울고 예쁜 영희는 유일한 재산인 입주권을 지켜보다가 문득 부동산 중개업자를 따라가 영동의 호화아파트에서 그에게 성적인 유린을 당하지만 대신 금고에서 기어코 아버지의 입주권을 빼와서 주택공사에 아파트 분양신청을 하게 된다. 그녀가 기진맥진한 상태에서 겨우 정신을 차린 자리에서 자신이 없는 사이 아버지마저 행방불명이 되었던 사실을 듣고 놀란다. 난장이 아버지는 항상 고되고 가난한 삶에 지친 나머지 이웃집 주택의 가정교사였던 지섭의 영향을 받아 자유롭고 차별이 없는 달나라를 향해 날아가 버렸다. 벽돌 공장의 굴뚝 위에 올라가 날다가 결국 아버지가 굴뚝 속의 시체로 발견되었다. 그러나 그의 죽음은 패배를 의미하지는 않는다. 왜냐하면 그의 죽음은 같은 불행한 사람들에게 사회와 현실을 성찰시키고 자아를 발견하게 함으로써 미래에 대한 전망을 확고히 해주기 때문이다. 조세희의 소설『난쏘공』은 1970년대 한국사회의 문제점을 투명하게 드러내고 대표적인 소설이라고 할 수 있다. 소설 속에서 타의적으로 움직이는 공원들의 일상은 무미건조하고, 의미 없이 똑같은 형식으로 반복되며 이러한 기계화된 인간은 인간미를 상실하고 매우 측은한 모습으로 그려진다. 이 작품에 나타나 있는 소외된 도시 근로자의 문제는 당시 한국사회가 당면하고 있던 현실의 문제와 맞닿아 있다. 즉, 생존에 필요한 최저 수준에도 못 미치는 저임금, 열악한 작업 환경, 고용자로부터 강요당하는 부당한 노동 행위, 노동조합에 대한 탄압, 폭력으로 저항할 수밖에 없는 그들의 극한적 심리 상태, 그리고 가진 자들의 위선과 사치, 교묘한 탄압 방법 등 산업 사회의 부정적 측면들이 작품 속에 사실적으로 제시되어 있는 것이다. '난장이'는 산업 사회의 진행 속에서 고통스럽게 살아가는 도시 빈민, 노동자 등의 소외 계층

을 의미하며 즉, 신체적 불구성을 통해 사회적 불구성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난쏘공』은 이런 사회적인 문제점을 불러 일으켜 부각시키는 데에만 그치지 않는다. 개발독재로 인한 소외계층의 비참한 삶과 현실을 분노 어린 시선으로 형상화함으로써 인간이 인간답게 살아야 할 꿈과 자유에 대한 열망을 잘 드러내고 있다. '난쟁이가 쏘아올린 작은 공'이란 바로 사회적 약자로서 꿈꿀 수 있는 최소한의 인격적, 사회적 삶의 조건을 의미하는 것이다. 다음은 단편 「클라인 씨의 병」의 한 대목이다.

> 이 병에서는 안이 곧 밖이고 밖이 곧 안입니다. 안팎이 없기 때문에 내부를 막았다고 할 수 없고, 여기서는 갇힌다는 게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벽만 따라가면 밖으로 나갈 수 있죠. 따라서 이 세계에서는 갇혔다는 그 자체가 착각예요.(p. 262)

안이 밖이고 밖이 안이다. 이 세계 자체가 착각이다. 이것이 뫼비우스 띠의 입체형인 '클라인 씨의 병'이 담고 있는 논리이다. 난장이 일가가 살아가는 현실은 분명 더 이상 나아갈 수 없는, 막다른 골목과도 같은 인상을 준다.[33] 그러나 클라인 씨의 병은 '갇혀 있는 듯한 그들의 처지가 착각일 수도 있다'는 새로운 해석을 가능하게 한다. 이러한 상상을 바탕으로 난장이들은 결코 헤어나지 못할 것만 같은 절망에서 희망을 찾고 사랑을 꿈꾸게 된다. 갈등이 사라진 화해의 공간이자 '사랑으로 일하고 사랑으로 살며 사랑으로 비를 내리게 하는 세계'가 그것이다. 이 아름답고 순수한 세계가 난장이에게는 '달나라'로 표현되고 있다. 또한 문학에서만이 가능한 정서적인 면도 강하게 부각되어 있다. 현실 문제를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있는 반면에, 이 작품의 문제의식은 '사랑'이라는

33) 김병익, 앞의 논문, p. 370

다소 추상적이고 이상적인 지점으로 귀결되고 있다. 작가는 이런 유도를 통하여 그 아름다움에 의해 비극을 더욱 고조시키고 있다. 이것은 조세희의 소설이 지극히 리얼리즘적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서정적으로 느껴지게 하는 이유이다.

『난쏘공』은 근대후기의 모순된 현실을 자양분으로 삼아 피어난 작품이라 할 수 있다. 그러면서『난쏘공』은 이 같은 근대화 과정에서 소외될 수밖에 없었던 민중들의 이념을 드러내고 있다. 왜냐하면 한국에서의 근대는 민중이 주체가 되기보다는 그 압축적, 파행적 성격 탓으로 오히려 소수 정치관료와 특권층, 군인, 독점적 자본가에 의해 일방통행식으로 진행되어 왔기 때문이다. 따라서 한국에서의 민중은 거기에 맞서 저항적인 자세를 취하거나 아니면 그들에게 기생하면서 자기의 목숨을 이어나갈 수밖에 없는 운명이었다. 예컨대『난쏘공』의「칼날」에 등장하는 신애가 사는 동네는 그런 민중들의 모습을 상징적으로 드러낸 것이다.

그러므로『난쏘공』은 책의 첫 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소외된 민중의 눈과 정신으로 파헤친 보고서라고 할 수 있다. 다시 말해『난쏘공』은 말하려는 것이 분명한, 그러면서도 말하려는 것에 의해 그리려는 것이 잘 조화를 이룬 소설이라고 할 수 있다. 말하려는 것이 분명할 수 있었던 것은 소외된 민중의 눈에 근대가 갖고 있던 모순점이 투명하게 드러났기 때문이다. 김병익[34]이 말했듯이, 그것은 대립적인 세계상에 다름 아니다. 근대의 혜택이 부당한 방식으로 소수의 손에 독점되었을 때 그 세계는 대립적일 수밖에 없는 것이다.『난쏘공』이 획득한 형식의 새로움도 사실은 그 같은 정신과 눈으로부터 비롯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 정신과 눈이란 바로 소외된, 그렇지만 완전히 빼앗기지는 않으려는 민중의 눈인

34) 김병익,「난장이, 혹은 소외집단의 언어」,『문학과 지성』봄, 문학과지성사, 1977.

것이다.

우선『난쏘공』이 그리고 있는 세계는 단순하다.『난쏘공』을 구성하고 있는 인물들은 프롤로그와 에필로그를 제외한다면 크게 난장이의 가족과 은강 그룹의 가족, 신애네 가족과 지섭, 윤호 정도이다. 이들이 놓여 있는 공간이나 인물도 단순하기 그지없다. 디테일의 묘사와 복잡한 성격의 묘사는 극도로 축약되어 있거나 단순하게 처리되어 있다. 몇 개의 선만으로 인물과 환경을 드러내는 것이다. 그리고 이 점에서『난쏘공』은 우화적, 동화적 분위기를 연출한다. 동화나 우화란 단순한 상황 제시와 한 방향으로 정형화된 인물의 성격을 그 주요 특징으로 하고 있다.

난장이 가족과 은강 그룹의 가족은 서로 다른 세계에서 서로 다른 삶의 방식으로 살아가지만 이들은 서로 대립적이다. 그 가운데에 신애네와 지섭이 존재하고 윤호가 어정쩡하게 존재하고 있을 뿐이다. 이들이 드러내는 성격 역시 복잡하지 않다. 난장이 가족은 경제적으로 궁핍하지만 가족 간의 사랑이 있다. 그리고 이들은 도덕적으로 선하다. 은강 그룹의 가족들은 경제적으로 풍요하나 서로 질시하고 도덕적으로 타락한 사람들이다. 신애네와 윤호는 난장이 가족에 대한 연민의 정을 품고 있다. 지섭 역시 그렇지만 그는 조금 더 적극적이다. 이렇게 공간과 인물이 단순화됨으로써 현실은 우리들에게 투명하게 다가온다. 물론『난쏘공』은 부분적인 난해성을 포함하고 있지만 그렇다고 작가가 말하고자 하는 바가 가리워질 정도는 아니다. 보편적인 독자라면『난쏘공』이 말하고자 하는 핵심 주제를 파악하는데 큰 어려움은 없다. 이런 동화적 단순성이 스타카토식의 짧은 문장과 압축된 문체, 동화적 분위기를 풍기는 작품 내의 부수적 요소들-예컨대 달나라, 낙원구 행복동, 은강시 등과 같은 지명-에 의해 증폭된다.

그 뒤에는 모든 것을 까발리려는 고발의 정신, 소수 특권층에 대한 복수심, 소외된 자들에 대한 끝없는 연민의 감정이 흐르고

있다. 작가가 말하고자 하는 주제의식이 이렇게 단순한 우화적 형식을 취하고 있다. 이런 우화적 단순함을 통해 드러나는 것은 이지러진 한국적 근대의 모습이다. 도시는 황폐하고 사람들은 대부분 궁핍한 삶을 살아간다. 소수의 사람들만 예외적인 물질적 혜택을 누리고 있다. 하지만 그들은 도덕적으로 타락하고 사랑을 모르는 존재들이다. 거기에는 근대화로부터 소외된 민중들의 복수심과 비극적 서정성이 흐르고 있다. 특히 「내 그물로 오는 가시고기」에 그려진 은강 그룹의 총수와 그 가족들의 모습은 소수의 지배계급에 대한 민중의 복수심이 작열한 결과이다. 이들을 바라보는 작가의 시선이란 증오 그 자체이다.

> 아주 못생긴 계집아이가 서 있었다. 대부분의 공장 작업자들이 그렇듯이 그 계집아이도 유난히 누런 피부에 평면적인 얼굴, 낮은 코, 튀어나온 광대뼈, 넓은 어깨, 굵은 팔, 큰 손, 짧은 하바신의 특징을 갖고 있었다. 열아홉 아니면 스무 살 정도였는데도 여자로 보이지 않았다. 천 날을 고도에서 함께 보낸다고 해도 자고 싶은 생각이 안 날 아이였다. 공장 노동이, 생명 유지를 위한 그 계집아이의 생업이었다.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은 노동자의 근육 활동뿐이었다.
>
> (pp. 283-284)

은강 그룹 회장 아들을 초점화자로 택한 이 작품에서 소수의 특권층이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이 적나라하게 표출된다. 총수의 아들이 공원에게서 발견한 것은 인간의 존엄성이나 인격성이 아니고 한낱 성적유희 대상 또는 돈벌이의 수단으로서의 기능이었다. 이같은 태도는 인간의 삶을 소외시킨다.

> 우리는 사랑이 없는 세계에서 살았다. 배운 사람들이 우리를 괴롭혔다. 그들은 책상 앞에 앉아 싼 임금으로 기계를 돌릴 방법만 생각하였다. 필요하다면 우리의 밥에 서슴없이 모래를 섞을 사람들이었다.-그들은 우리와 전혀 다른 배를 탄 사람으로 행동했다. 그들은 우리의 열

> 배 이상의 돈을 받았다. 저녁 때 그들은 공업지역에서 먼 깨끗한 주택가 행복한 가정으로 돌아갔다. 그들은 따뜻한 집에서 살았다. 그들은 몰랐다.(p. 220)

주인공 영수가 인식한 현실이다. 사랑의 공동체가 허물어지고 인간적 관계가 단절된 이기주의적 삶의 실상이 고발되어 있다.

따라서 난장이 가족들의 증오는 비장미와 비극적 서정성으로 끓어오르게 한다. 적대적인 세계에 맞선 나약한 존재, 그러나 맞서서 싸울 수밖에 없는 이들은 비장감에 휩싸여 있다. 작가 특유의 호흡이 빠른 문장은, 사실 이런 결연함으로부터 비롯된 것이기도 하다. 연속되는 짧은 문장은 우리들에게 다른 사유의 문을 허락하지 않는다. 뿐만 아니라 짧게 튀어나오는 작가의 목소리는 현실을 고발하려는, 신념에 차있는 단호한 태도와 연결되어 있다.

> 알루미늄 전극 공장에 나가는 젊은이가 어린 신부와 함께 이웃에 세를 들어 살았다. 젊은이의 몸은 흔적도 없이 날아가 버렸다. 그는 하루에 천삼백 원씩 받고 일했다. 남편을 잃은 어린 신부는 목을 매어 죽었다. 어머니는 신부가 임신 중이라고 말했다. 배 안에 웅크리고 앉아 있던 또 하나의 생명이 어머니를 울렸다. 나는 아버지에게 물려받은 사랑 때문에 괴로워했다. 우리는 사랑이 없는 세계에서 살았다. (p. 220)

짧은 문장은 결국 작가의 결연한 목소리를 드러내는 효과를 주면서 동시에 상황의 단순 명료함을 촉발시켜 주제를 선명하게 전달하는 역할도 한다. 이런 문체는 난장이 가족들이 처한 고통에 비극적 서정성과 비장미를 부여하는 한편, 적대적 세력에 대해서는 단호함으로 상대의 도덕적 허점을 증폭시켜낸다. 결국 스타카토식의 짧은 문장은 세계에 대한 결연함, 비극적 서정성, 대상에 대한 단호한 태도와 함께 적대적 대상에 대한 복수심 등에서 우러나오는 작가 특유의 목소리라고 할 수 있다.

이렇게 보면『난쏘공』의 우화적 단순성은 근대화 과정에 있었던 한국적 모순을 고발하고 복수하려는 민중의 정신과 목소리가 일궈낸 텃밭이라고 할 수 있다. 한국적인 근대의 모순을 낱낱이 고발하려는 민중의 정신이 자기에게 맞는 형식을 명징하게 찾아낸 것이 바로『난쏘공』인 것이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은 앉은뱅이와 꼽추를 통해 작가가 드러내는 현실세계의 분위기도 2차원적인 '면'의 속성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이다. 즉「내 그물로 오는 가시고기」에서 병훈의 삼촌이 주장하듯이, 이들과 "그들의 식구들은 2차원의 세계에 살고 있다"(p. 271) "현실이 한 차원을 빼앗아 버렸기"(p. 271)기 때문에, 단조롭고 평면적인 삶만이 허락되는 소외된 삶의 현장-즉, "일정한 한도와 경계가 있는"(p. 271) 2차원의 세계-에서 그들은 생존하고 있는 것이다. 말하자면, 자신의 감정을 죽이고 본능만이 남아 있는 비현실적인 삶의 유지가 이들이 현실에서 터득한 유일한 생존방식인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작가가 앉은뱅이와 꼽추라는 두 인물을 제시하면서 가능한 한 그들의 감정을 드러내지 않고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한 예로, 작가는 우리들로 하여금 강제철거를 묵묵히 견디어내는 이들의 모습에서 그 흔한 감정적인 분노를 읽어낼 수 없게 한다. 또한, 부동산업자에게서 자기들의 몫을 되찾는 과정에서 이들이 보이는 것은 상대에 대한 분노가 아니다. "거칠어"지는 "사나이의 목소리"와 대조되는 "여전히 작"은 "앉은뱅이의 목소리"(p. 21)가 이를 암시해주고 있다. 간간히 "떨리는 손"(p. 20)이나 "가슴"(p. 20)을 통해 그들의 감정적인 동요를 일별할 수도 있으나, 전체적으로 앉은뱅이와 꼽추는 강열한 감정이 배제된, 비현실적인 2차원적 세계의 인물이라는 인상을 지우기 어렵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클라인 씨의 병'으로서의 현실은 공간적으로 열려 있는 세계로서의 의미를 갖는다는 점이다. '갇혔다는 그 자체가 착각'임에도 불구하고 갇혀 있다고 느껴지는 것이 현실

세계 내에서의 우리의 삶이라면, 현실이 갖는 의미는 자명해진다. 즉, 우리의 현실이란 하나의 '착각'일 수도 있다는 것이다. 이것은 셰익스피어가 『한 여름밤의 꿈』에서 드러내고 있는 꿈이 현실인지 현실이 꿈인지 변별할 수 없다는 의미와 같은 것이다. "상상의 세계에서만 그 존재가 가능"(p. 254)한 세계가 실재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현실은 비록 하나의 착각-또는 허상-이지만 역시 실재하고 있는 것이다. 착각일 뿐인 이 현실에서 "살기가 너무 힘들다"(p. 254)고 느껴질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란 무엇인가? 『난쏘공』을 통해 작가는 "아름답고 순수한 세계"(p. 254)라는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이 아름답고 순수한 세계가 난장이의 경우에는 '달나라'(p. 254)다. "이 땅에서 끝까지 고생하다 바짝 마른 몰골로 죽기"(p. 121) 전에, "힘든 일에 눌려 허우적거리다 숨을 거두기"(p. 121) 전에 난장이가 가고 싶어하는 달나라는 물론 상상 속의 세계이다. 그러나 그 상상 속의 세계는, "먼지가 없"(p. 120)는 물리적 세계일 뿐 아니라, 난장이가 그린 사랑의 세계일 수도 있다.

상상 속에서나 그 존재가 가능할 기묘한 현실이 실재로서 존재하고 있는 이상, 난장이가 소망한 또 하나의 상상 속의 세계가 실재하지 말라는 법은 없는 것이다. 난장이의 소망이 우화적인 색채를 띠지 않고 구체적 삶의 무게를 지니는 것은 바로 이와 같은 현실에 대한 작가의 인식이 『난쏘공』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이다.[35]

4. 『난장이가 쏘아올린 작은 공』이 지닌 특징

『난쏘공』이 문학적으로 성공을 거둘 수 있었던 것은 강한 주제

35) 장경렬, 「뫼비우스 띠와 클라인 씨의 병」, 『작가세계』 겨울, 세계사, 1990, p. 59.

의식 때문만은 아니다. 그 문학적 형상화에서 보여준 여러 가지 기법 또한 기여한 바가 컸다. 상징법, 대조법, 씨네마도-그라프(cinemato-graph) 등의 이중 상징법이 그것이다. 이와 같이 주관의 상상에 호소하는 모든 기법의 사용은 그가 이미 고전적 리얼리즘을 넘어서 네오리얼리즘의 차원에 있음을 뜻한다. 이 중에서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한 것이 상징법이다.「뫼비우스의 띠」에서 뫼비우스의 띠,「우주여행」에서 우주인과 달나라,「난장이가 쏘아올린 작은 공」에서 역시 달나라와 우주인,「궤도회전」에서 죄인의 고문,「클라인 씨의 병」에서 장님과 클라인 씨의 병,「내 그물로 오는 가시고기」에서 그물과 고기, 그리고「에필로그」에서 반딧불과 쏙독새, 우주인 등이다.「뫼비우스 띠」에서 수학선생님은 마지막 시간에 뫼비우스의 띠를 칠판에 그려놓고 그 상징적인 의미를 암시적으로 이야기한다.[36]

> 내부와 외부를 경계 지을 수 없는 입체 즉 뫼비우스의 입체를 상상해 보라. 우주는 무한하고 끝이 없어 내부와 외부를 구분할 수 없을 것 같다. 간단한 뫼비우스의 띠에 많은 진리가 숨어 있는 것이다.(p. 29)
> … (중략) … 이것이 클라인 씨의 병이야 안팎이 없는데 갇힌 공간이 있어.(p. 259)

이 같은 상징을 통해 주인공이 깨달은 것은 이 세계란 본래 안과 밖이 없듯이 모든 인간도 안과 밖이 없는, 경제적·사회적으로 평등하게 살아야 하는 공간이며, 나아가 자유롭게 자신의 창조적 삶을 실현할 수 있고 또 그렇게 되어야 하는 공간이라는 사실이다. 따라서『난쏘공』이 별다른 거부감 없이 많은 사람들에게 읽힐 수 있었던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우리 사회가 당면하고 있었던 문제를 본격적으로 조망했다는 데에 있는 것이다. 압축된 근대가

---

36) 오세영,「사랑의 입법과 사법」,『세계의 문학』, 민음사, 1983.3, pp. 386-387.

빚어낸 그늘을『난쏘공』이 최초로 드러냈던 것이다. 그러나 또 다른 한편으로『난쏘공』이 그렇게 오랫동안 널리 읽힐 수 있었던 것은,『난쏘공』이 지향했던 민중의 정신에 있다.『난쏘공』은 민중의 정신을 넘어서지도, 거기에 미달하지도 않은 작품이다.『난쏘공』은 민중의 양심에 가장 호소력이 있었던 작품이기에, 보편적인 정서를 지닌 사람이라면 별다른 정치적, 이데올로기적 거부감 없이 작품을 받아들일 수 있었다. 그래서 80년대 꼭 운동권에 몸담은 학생이나 특정한 정치적 지향을 지닌 사람이 아니더라도『난쏘공』만큼은 인구에 회자될 수 있었다.

이런 단순함은 주제의 선명성을 뒷받침한다. 요컨대 작가는 우리들에게 말할 것을 분명히 갖고 있는 것이다. 이 강렬한 윤리관은 70년대 민중주의의 성격을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으며 급속한 산업화가 낳은 현실의 모순에 천착하여 그 극복을 모색하던 초보적인 단계의 순수함과 조급함도 이 작품은 보여주고 있다. 현실인식의 단순성과 단순한 만큼 더욱 확연하게 부각된 순수성은 이 작품이 누린 대중적 인기의 중요한 요인이었다. 그러나 현실인식의 단순성과 극단적인 정도의 윤리적 순수성은 진지한 탐색을 거치지 않은 이념의 일방적인 계몽적 성격을 띠게 된다. 이러한 성격이 은연중에 가진 자가 사랑을 회복하여 못 가진 자에게 나누어 주어야 한다는 의미로 나타나기도 한다. 아무튼 이 작품이 70년대의 역사성과 문학성을 동등한 비중에서 다루고 있음은 분명하다. 작품 내용이 시대의 핵심문제에 접근해 있고, 소설기법상으로도 뛰어났음을 알 수 있다.

그런 점에서『난쏘공』의 내부에 흐르고 있는 것은 민중적 정서와 도덕이다.『난쏘공』에는 자기들 보다 못한 처지에 놓여 있는 자들에 대한 연민이 있다. 신애를 초점화자로 하는 택한「칼날」이야 말할 나위도 없지만 다른 연작 단편들도 모두 마찬가지이다. 난장이와 난장이 가족, 그리고 그 주변 사람들을 묘사하는 작가의

시선은 그런 점에서 애절하고 쓸쓸하다. 이들 등장인물들은 이 작품에서 일방적으로 희생당하는 존재들이거나, 모든 약자가 그러듯이, 세상을 인간적으로 바라다보는 존재들이다. 난장이, 꼽추, 앉은뱅이이라는 육체적 조건이 이미 그렇게 되도록 만들어진 존재들이다. 작가는 이들을 도덕적으로 선한 존재로 묘사하고 있다. 필요 이상으로 물질적 욕심을 부리지 않으며, 가족 간, 동료 간에 애정과 신뢰로 뭉쳐져 있다. 부지런하고 근면하며 조금이라도 배우려고 애쓴다. 그런데 이들이 일방적으로 핍박받고 희생당하고 좌절한다. 작품을 읽는 사람들이 이들에게 연민의 정을 느끼는 것은 당연하다. 그것은 특별한 정치적 이데올로기와 관계없이 느낄 수 있는 감정, 다시 말해 민중적 덕목이다. 자신들이 선하다고 믿는 가치들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현실에 대해 독자들은 분개하게 되고 그들이 분개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할 수 있다.

반면 난장이의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 은강 그룹 사람들이나 아파트 개발업자들은 전혀 도덕적이지 않다. 그들은 매우 탐욕적이며 성(性)적으로도 타락했고 가족 간에도 서로 질시한다. 타인에 대한 배려는 전혀 없고 세상을 탐욕적으로 살아간다. 이들은 지나치게 부유하며, 힘을 갖고 있다. 이들은 도덕적으로 전혀 선하지 않다. 더구나 이들에 의해 난장이와 같은 선한 부류들이 패배 당한다. 소설을 읽는 사람들이 이들에게 도덕적 적개심을 유발하게 되는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다.

『난쏘공』에 스며든 정서는 이처럼 매우 도덕적이다. 한국의 근대가 갖고 있는 구조적 모순은 민중들에게 도덕과 정서의 문제로 변환되어 전달된다. 물론 작가는『난쏘공』의 대립을 형성하고 있는 것이 구조적 모순이라는 점을 중요하게 여기고 있다. 그러나 작품의 전면에 등장하는 것, 쉽게 눈에 띠는 것은 도덕적인 선악의 대립이다. 이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오랜 시간『난쏘공』을 별다른 거부감 없이 읽을 수 있었던 것이다. 한국의 대중들은 도덕

의 문제에 대해서는 쉽게 공감한다. 80년대 많은 노동소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대부분 이념논쟁에 휘말려 들어가 그들이 지닌 문학적 가치를 제대로 평가받지 못하고 사라졌음을 상기할 때, 『난쏘공』은 오히려 자기 나름의 방식으로 민중적 보편성을 획득했다. 『난쏘공』은 도덕적인 방식으로 현실의 문제를 우리 사회에 제기하였던 것이다.

『난쏘공』의 감수성과 언어 또한 민중적이다. 난장이와 그의 아내, 자식들, 그리고 꼽추와 앉은뱅이가 구사하는 언어는 민중들이 사용하는 일상적인 언어이다. 그들은 교양 있는 언어를 구사하며 대상에 대해 지적(知的)인 분석을 행한다. 그리고 그들이 사는 공간과 그들의 모습에 대한 묘사는 단순하다. 궁핍하고 추저분한 모습은 드러나지 않는다. 『난쏘공』를 지배하는 언어는 민중들이 사용하는 일상 언어들이다. 그런 언어를 통해 민중들은 『난쏘공』에 친숙하게 접근할 수 있었던 것이다.

> 영희가 기타를 쳤다. 나는 벽돌 공장 굴뚝 위에 떠 있는 달을 보았다. 나의 라디오는 고장이 났다. 며칠 동안 나는 방송통신고교의 강의를 받지 못했다. - 나는 명희와의 약속을 지킬 수 없었다. 중학교 3학년 초에 학교를 그만두었다. 더 이상 나갈 수 없었다. 아버지와 어머니는 내가 공부를 계속하기를 바랐다. 그러나 밀어줄 힘이 없었다. 자세히 보면 아버지는 같은 또래의 사람들보다 많이 늙어 보였다. 우리 식구들밖에 모르는 일이었다. 아버지의 신장은 백십칠 센티미터, 체중은 삼십이 킬로그램이었다. 사람들은 이 신체적 결함이 주는 선입관에 사로잡혀 아버지가 늙는 것을 몰랐다. 아버지는 스스로 황혼기에 접어들었다는 체념과 우울에 빠졌다.(p. 95)

난장이의 큰아들 영수를 화자로 택한 위의 인용 부분을 보더라도 이 점은 어렵지 않게 확인된다. 기타를 치고 공장 굴뚝 위에 뜬 달을 본다는 행위의 서술, 고장 난 라디오에 대한 언급 등은 조세희 특유의 호흡 빠른 단문과 조화를 이루면서 서민들의 힘겨

운 도시 생활에 대한 애상감(哀傷感)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그러나 그 애상감은 꼭 도시 빈민의 것만은 아니다. 그것은 도시에 사는 사람들이라면 공감할 수 있는 보편적 정서에 가깝다. 아버지에 대한 분석적 서술 역시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다. 자신의 아버지에 대해 비판적인 측면에서 분석적인 태도로 말할 수 있다는 점에서 영수는 매우 지적인 인물이라고 할 수 있다. 그는 민중들의 정서와 유리된 세계에 살아가는 인물이 아니다. 또한 난장이의 자식들은 비록 줄이 끊어지긴 했지만 기타를 치고 팬지꽃을 키운다. 어린 시절부터 품어온 달나라와 우주여행의 꿈을 꾼다. 독자들이 작품을 읽어가면서 이들에 대해 거부감을 가질 이유가 없다. 난장이와 곱추, 앉은뱅이라는 육체적 조건들을 제외한다면 난장이들은 일반 민중들과 다를 바가 없다. 그들은 다만 우화라는 형식이 오히려 이들을 생생하게 살아 움직이는 현실로부터 동화의 세계로 이끌어 간 것이다. 난장이와 꼽추와 앉은뱅이는 우화 속에서 살아갈 때 더 자연스러워 보인다.

5. 맺음말

『난쏘공』에서 조세희가 인식하고 있는 산업사회는 존재로서의 인간이 부정되고 도구로서의 인간이 존중되는 사회이다. 작가는 주인공이 살고 있는 사회가 인간을 독자의 존재성 혹은 인격성으로 대우하지 않고 항상 어떤 목적을 위한 수단으로서만 대우하는 사회라고 본다. 그것은 자본의 경제적 실현을 자본의 경제적 실현을 위한 수단이며 상품생산과 경제적 이윤추구로서의 수단인 것이다. 따라서 거기엔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이나 창조적 자기 개발이나 선악판단과 같은 가치개념이 수반될 수 없다. 이 소설의 여러 곳에서 묘사되고 있는 '가진 자들의 비인간적인 기업경영, 노동력

착취, 부도덕한 사생활과 한낱 기계와 같은 존재로 전락해 버린 노동자의 삶의 대조'가 이를 설명해 준다.

염세주의 혹은 허무주의로 인해서 주인공들은 우리들의 현실 지구를 버리고 달나라로 가기를 꿈꾸는 것이다. 왜냐하면 달나라는 천문대의 렌즈를 닦을 필요가 없을 만큼 먼지가 없는 깨끗한 나라이며, '식물처럼 무기물에서 유기물을 합성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나라'이기 때문이다. 먼지가 없는 깨끗한 나라라는 말은 상징적으로 도덕성이 확립된 공간, 즉 지순한 공간이라는 뜻이며, 무기물에서 바로 유기물이 합성될 수 있는 나라라는 말은 경제적 생산과 분배에 따르는 제 갈등, 즉 동물적 이기주의와 탐욕주의가 없는 나라라는 것이다. 이렇게 본다면 달로 상징된 나라는 주인공들이 실현코자 하는 이상세계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지구탈출이라는 주인공들의 꿈은 단순히 현실을 버리고 환상이나 관념의 공간에 도피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되기 보다는 그들의 이상세계를 이 지상에 실현하고자 하는 의지라는 뜻으로 해석되어야 할 것이다. 그렇게 해석되어야 할 근거는 이들 이야기가 어디까지나 상징적 수법으로 제시되어 있으며 이들 주인공들 역시 끝까지 그들의 삶에서 현실이 개혁되어야 한다는 의지를 보여주었거나 행동으로 이를 실천했기 때문이다.

조세희 소설이 우리의 역사에서는 최초의 현상인 대규모적인 산업화의 핵심적 국면인 산업 노종 현실에 대한 본격적이고 과학적인 진단으로서 지금까지 거의 유일한 문학적 업적[37]이라는 김종철의 평가는 조세희의 현실 성찰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선과 악, 가난과 부처럼 명확하게 드러나는 대립항들을 통하여 1970년대라는 당대 노동현실의 문제를 이분법적이고 대립적인 세계 인

37) 김종철, 「산업화와 문학 - 1970년대 문학을 보는 한 관점」, 『시적 인간과 생태적 인간』, 삼인, 1999, p. 341

식의 형태로 보여주고 있기에, 당대의 다른 리얼리즘 소설들과는 구별되는 새로운 리얼리티를 창조하고 있기 때문이다. 리얼리티에서 출발하되, 있는 리얼리티를 거부하고 있어야 할 새로운 리얼리티를 끊임없이 지향하고 추구한 텍스트[38]라는 우찬제의 평가 역시 현실과 환상, 구체와 추상을 넘나들며 서로 스미고 짜이게 하는 열리 텍스트라는 점에서 조세희 소설의 특징을 잘 드러내주고 있다.

참고문헌

1. 기본 자료

조세희,『난장이가 쏘아올린 작은 공』, 이성과 힘, 2012.

2. 저서, 논문, 평론, 기타

권영민,『소설과 운명의 언어』, 현대소설사, 1976.
김병익,「난장이 혹은 소외 집단의 언어 - 조세희의 근작들」,『문학과 지성』 봄, 1997, pp. 183-184.
_____,「대립적 세계관과 미학」,『문학과 지성』, 1978.
_____,「산업 시대의 문학-몇 가지 생각」,『문학과 지성』, 1979.
김치수,「산업사회에 있어서 소설의 변화」,『문학과 지성』, 1979.
김 현,「조세희의 병신소설」,『한국문학』, 1977.
성민엽,「방법 · 기법의 가치」,『문학사상』, 1999.
오생근,「진실한 절망의 힘 - 조세희 소설집」,『창작과 비평』 가을, 창비, 1978, pp. 358-362.
오세영,「사랑의 입법과 사법」,『세계의 문학』, 민음사, 1983.3, pp.

38) 우찬제, 앞의 책, p. 261

386-387.
이동렬,「암울한 시대의 밝은 조명」,『문학과 지성』가을, 문학과지성사, 1978, pp. 291-297.
이동하,「<작가론> 어두운 시대의 꿈 - 조세희론」,『작가세계』, 세계사, 1990, pp. 41-42.
_____,「조세희 연구의 성과와 앞으로의 과제」,『작가세계』7, 세계사, 1990, p. 106.
조가경,「마르쿠제의 이상과 환멸」,『중앙』, 1968. 12.
Freud, Sigmund, 강영계 역,『문화에서의 불안』, 지만지, 2008.
Marcuse, Herbert, 김인환 역,『에로스와 문명』, 나남, 1996.
Marcuse, Herbert, 이원희 역,『일차원적 인간』, 육문사, 1996.

A Consideration on Alienation-Phenomenon of Represent on Cho Sea-hee's *The Ball Shot by a Midget*

Bae, Kyeong-Yeol

Literature of one era is not natural product created in a flow of time, but a document of struggles in which an author would give an insight into social issues of his contemporary era in acute literary pursuit of reality and thereby communicate them to reader. Author Cho Sae-hee defines 1970's as an era in which 'evil' was boldly dis-guised as 'good.' In those days, South Koreans enjoyed economic abundance owing to rapid industrial growth, but were subject to grim control of military dictatorship in political aspect. Besides, good values were reversed with evil ones due to regional and occupational in-equality and disparity. It was an era in which interclass conflicts and confrontation went worse under the influence of scorn and oppression in both political and economical aspect. For this period, author Cho suggested that social members suffer from agony and irrationality due to absurdity of their contemporary era, so it is required to publicly discuss wrong circumstances and negative realities inherent in the era in the interest of seeking possible solutions.

The consecutive publications of "*The Ball Shot by a Midget*", a series novel of Cho, in mid and late 1970's are unrelated to realities of the time. And it is 'fantasy' that this series work suggests so as to overcome those realities. In general, fantasy is unreal world, but paradoxically, it allows us to consider what the reality is all about and reveal the nitty gritty of realty. That is why the fantasy in "*The Ball Shot by Midget*" makes realities hidden in 1970's shown unfamiliar in its external aspect, while making us recognize solid aspects of reality and revealing modified appearance of oppressed desires. So the fantasy does not work independently from realities in 1970's but interacts with the latter. Internally, the fantasy emphasizes reality in the miserable life of midget generation and class-oriented group characters are based on realities,

which indicates that realty and fantasy coexists with each other in one framework, not confronts each other as independent element. The alienation-phenomenon in Cho's novel works is different from absurd delusion or imagination far from realities, and is also characterized by stepping up awareness of realities in 1970's.

Key words: Cho Sea-hee, *The Ball Shot by a Midget*, 70'S, Irrationality Alienation

배경열
소속: 건국대학교 커뮤니케이션 문화학부
주소: 서울시 동대문구 이문동 325-37
전화번호: 010-4492-3237
전자우편: bae4707@hanmail.net

이 논문은 2013년 2월 21일 투고하여
2013년 4월 10일까지 심사 완료하여
2013년 4월 30일 게재 확정함.